

## 편집장의 머리말

### 제주소피아 '추억'을 시작하며

#### 09학번 고유석

안녕하십니까? 이번 17호 제주소피아 편집을 맡게 된 09학번 고유석이라고 합니다. 이번 17호 제주소피아 주제는 '추억'입니다. 2016년에는 철학과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추억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철학과 내의 추억들을 소피아에 담아보고자 해서 이번 주제를 추억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추억이란 지난 일을 돌이켜 생각하는 일을 가리킵니다. 이번 주제를 추억으로 정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2016년의 한 해 동안 철학과 학생들의 학과 생활의 모습들은 이제 추억이 되었고 그런 추억들을 한 눈에 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추억이라는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고 또 다른 이유는 저에게 있습니다. 저는 올해를 마지막으로 학교생활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제가 철학과 내에서 학과생활을 하면서 걸어왔던 길들을 다시 회상해보고 싶기에 추억이라는 주제가 딱 좋을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철학과 신입생 뿐만 아니라 재학생 여러분들도 분명 학과생활을 하면서 웃었던 순간, 울었던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순간들은 분명히 여러분의 추억으로 남게 될 것이고 이러한 추억들을 생각하면서 "이땐 내가 그랬었지, 그때 참 재미있었지."라는 말을 할 것 같습니다. 철학과에서의 순간순간이 정말 소중한 법한데 이런 명언이 떠오릅니다.

'순간의 소중함은 그것이 추억이 되기까지 절대 알 수 없다.'

## ■ 제주소피아 '추억'의 시작

이 말에 정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추억에 관한 명언이 또 몇 개가 떠오르는데요

'옛날이 지금보다 나은 이유는 뭔가가 하나 더 있기 때문이다. 바로 추억이라는 것..'

-패터 빅셀-

'추억이란 인간의 진정한 재산이다. 기억 속에서 인간은 가장 부유하면서 또 가장 빈곤하다.'

-알렉산더 스미스-

이 명언들에서 저는 옛날의 기억이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재산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소피아에서 '철학과 추억'이라는 말에 맨 첫 글자와 두 번째 글자를 따서 이번 소피아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철**학과 취업 그리고 추억

**학**회장들의 인사말

**과**생활: 2016년의 추억들

**추**억: 미네르바의 향연-졸업 후

**추**억을 마무리하며

이렇게 앞 글자와 두 번째 글자를 따서 구성을 해보았고 앞부분에서는 취업에 관한 이야기와 학교생활의 추억이 담긴 재학생들과 교수님들의 철학이야기들을 이야기할 것이고 중반부와 후반부

## 편집장의 머리말: '추억'을 시작하며 ■

에는 2016년 한 해 동안의 학과생활의 모습들 그리고 가장 큰 행사인 미네르바의 향연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려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옛날의 기억이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재산이 될 수 있듯이 2017년에도 여러분들이 많은 추억거리들을 만들어보기를 기원하면서 이번 17호 제주소피아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1월, 제주소피아 편집장  
고유석